

《문화의 위치》

어느 인문학자의 독창성

글 권택영(경희대 영문과 교수)

결혼하여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여자가 있고, 그저 가볍게 사귀어 보고 싶은 여자가 있고, 결혼도 사귀어도 아니지만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여자가 있다. 책도 마찬가지다. 읽을수록 새롭게 맛이 나기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책이 있고 호기심으로 읽었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책이 있다. 그리고 되풀이 읽고 싶지는 않아도 존경과 감탄을 품게 하여 기억하고 싶은 책이 있다. 첫 번째 책은 남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책이요, 두 번째는 내가 알리지 않아도 남들이 아는 책이요, 세 번째는 남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다. 문화사에서 한 시대의 획을 긋는 독창적인 인문학 서적은 아마 세 번째 범주가 아닐까.

기억될 만한 인문학자 가운데 단 한권의 책으로 문화사에 공헌하고 더 이상 쓰지 않는 학자가 있다. 인도 출신의 인문학자 호미 바바(Homi K. Bhabha)는 1994에 기념비적인 한 권의 책으로 이름을 알리고 지금까지 많은 후학들의 글에서 자주 인용되지만 더 이상 쓰지 않는다. 그 책은 '하이브리드'(hybrid)란 유행어를 낳았는데, 이 용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음식이나 문화가 혼혈적으로 섞인다는 의미인 '퓨전'이라는 용어를 낳게 했다. 그는 단 한 권의 책으로 명문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현재는 하버드 대학 교수이다. 그의 책 《문화의 위치》(The Location of Culture)는 왜 유명하고 많이 인용될까.

소위 근대 이성중심주의를 반성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해방의 패러다임인 포스트모더니즘, 탈식민주의, 문화연구 등은 억압된 계층의 음성을 복원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세계를 움직인 탈근대 사상가들은 앞선 사상을 '다르게 반복' 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들이 푸코, 데리다, 라캉이다. 서구에서 근대가 막을 내린 것은 2차 대전을 주도한 파시즘이 막을 내리면서다. 특히 나치즘은 대륙 철학의 판도를 프랑스에게 양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독일이 패전의 고통 속에서 속죄하는 동안 프랑스는 재빨리 독일의 지적재산을 빌려 그들의 것으로 만든다.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를 다시 읽어 중심주의(혹은 정치적 파시즘)를 해체하는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푸코는 주로 니체의 '지식의 계보학'에 의존하여 계몽주의 이후 근대 역사를 다시 읽었다. 그는 이성애 중심의 가족중심주의가 산업사회와 제국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기반을 두고 성립된 자의적 제도임을 드러내 미국에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과 버틀러의 '퀴어 운동'(동성애 해방)을 탄생케 한다. 데리다는 니체의 언어와 프로이트의 상흔 찾기에서 암시를 받아 플라톤 이래 서구 이성중심주의를 전복한다. 그는 이성이 억압한 감정, 밝음이 억압한 어둠 등, 차이를 인정하고 여기에 시간을 합쳐 의미가 끝없이 지연된다는 차연(differance) 혹은 의미의 산중(dissemination)이라는 조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라캉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다시 읽는다.

후배들이 니체와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를 방문하자 죽은 유령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난다. 후배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지만 그들을 따르는 학자들이나 비판자들, 그리고 유럽문화를 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미국화하려는 미국 학자들 역시 경쟁적이 되었다. 죽은 대가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니체와 프로이트가 부딪친다. 예일 대학의 데리다 열풍을 세계 치면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부상할 때는 니체가 선두주자처럼 보인다. 서구가 동양을 읽는 방식도 권력에의 의지에 의한 자의적 지식이라는 가설이다. 데리다가 이끌던 예일 사단의 해체론이 난해함으로 아카데미즘을 벗어나지 못하는 풍토에서 사이드가 현실개혁의 실마리를 던진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의 함정이 있었다. 이것을 극복하려던 학자가 호미 바바다.

사이드의 함정은 니체의 계보학이 현실 개혁의 방법론으로 축소될 때 내재되는 한계였고 푸코가 개혁적인 마르크시스트들로부터 비난받는 이유였다. '오리엔탈리즘'이 서구가 창출한 권력에의 의지라면 동양인들의 음성은 무엇이나. 가치중립적인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억압받은 계층이 말할 수 있는가. 바바는 여기에서 데리다, 푸코, 라캉 셋을 모두 합하여 탈식민주의 이론을 만들었다. 그것이 하이브리드론이다. 바바의 작업을 잘 들여다보면 독창성이 참 별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문화의 위치》
호미 바바 지음 | 나병철 옮김 | 소명출판사 | 488쪽 | 값 21,000원

2007년 3월 9일 금요일 14:00

데리다의 산중(dissemination)은 의미가 시간과 공간에 의해 끝없이 지연되며 변모한다는 뜻의 조어다. 이것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화에 적용하여 '산중' (dissemination)이라는 조어를 만든다. 한 나라의 문화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접촉하여 새로운 혼종문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문화는 무엇인가?” 물었을 때 대답은 쉽지 않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지식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통일을 한 후 중국의 불교문화와 유교문화가 들어와 우리 토착 문화와 혼종을 이룬다. 조선 이후에는 일본문화와 서구문화가 그 위에 덧칠해져서 현재 우리문화를 이룬다. 문화는 이런 식으로 기존의 것에 덧칠해질 뿐 순수한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바가 말하는 문화의 위치다.

라캉의 삼각구조를 비판한 데리다,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를 비판한 들뢰즈, 프로이드의 한계를 지적한 푸코 등 힘센 선배 셋을 놓고 후배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이들을 또 미국이 자신들의 것으로 다투어 다시 읽을 때 바바가 선택한 길은 이 셋의 닳은 부분을 끌어다가 자신의 것을 만드는 독창성이었다. 데리다의 산중은 정신분석이 대화를 통해 상흔을 찾는 방식과 같다. 여기에 마르크시즘의 현실개혁을 첨가하자. 그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화의 산중이다. 그것이 어떻게 탈식민주의 개혁 이론이 되는가.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와 접촉하여 끝없이 덧칠해질 때 제국이 식민지를 만들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맞지 않는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화할 때 미개인을 개화하고 서구의 문명을 이식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 서구의 평등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제국에 반기를 들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상아와 목재가 그들의 무의식이었기 때문이다. 똑같이 인도는 제국의 문화 가운데 자신들 입에 맞는 것만 선택한다. 기독교의 평등원리를 따르는 하층민들도 소고기를 먹는 서구문화를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문화적 차이는 무의식 때문에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산뜻하게 이식되지 않는다. 프로이드가 말한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가 문화에 그대로 적용되어 '문화적 차이'가 된다. 그야말로 얼룩덜룩한 문화이니 식민제도가 내세운 명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그 혼란은 해석할 수 없는 긴 동굴의 반향음으로 남는다. 식민주의는 실패한다.

바바는 인도인으로 영국 문화를 배운 학자다. 그 자신이 얼룩덜룩하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는 데 이용한 셈이다. 이처럼 독창성은 아주 조금만 비틀면 된다. 그런데 바로 그 '아주 조금만'이 여간해서 쉽게 오지 않는다. **한**



● 이 글을 쓴 권택영은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 영문학 박사를 마친 뒤 현재
경희대 영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7년 김환
태 평론상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란 무엇인가》 《감각의 시대: 라캉으로 영화읽기》 《라
캉, 장자, 태극기》 《잉여쾌락의 시대: 자책이 본 후기
산업사회》 등이 있다